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5. 2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슬로바키아 총리, 피한의 총격으로 병원 이송
 - 5.15 언론은 親러시아 성향의 「로베르트 피초」 슬로바키아 총리가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회의 후 피한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,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보도
- 獨, 하마스 지원단체 해산 및 자산몰수 명령
 - 5.16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는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'뒤스부르크 팔레스타인 연대' 활동을 금지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하였으며, 단체 자산은 州정부에서 몰수하기로 했다고 발표
 - ※ 정부는 해당 단체가 '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 영토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反유대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증오와 폭력을 선동한다고 지적

미주

- 美 FBI, 프라이드의 달* 행사 테러 발생 위험성 경고
 - 5.16 美 FBI는 다가오는 6월 예정된 프라이드의 달 행사를 해외 테러조직이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, 행사가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
 - *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, '22년에는 美 아이호다주에서 열린 同 행사에서 반대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31명이 체포
- 멕시코, 대선·총선 앞두고 정치인 상대 총격
 - 5.20 언론은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다음달 2일 멕시코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총기 공격을 자행해 최근 4일간 여당 정당인 및 시장후보자 등 최소 14명 이상의 정치인이 사망했다고 보도

중 동

○ KRSC, 쿠르드 지역에서 ISIS 지도자 체포

- 5.17 언론은 쿠르드 지역 안전보장이사회(KRSC)가 이라크 모술, 튀르키예, 시리아 등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ISIS 소속 고위급 지도자 「칼릴 이스마일」을 체포하였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말레이시아, 남부 경찰서 피습으로 경찰 2명 사망

- 5.18 언론은 말레이시아 남부 경찰서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로 경찰 2명이 사망했으며, 현지 경찰은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'제마 이슬라미야*(JI)'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성명을 발표

* '02년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(202명 사망)의 배후

○ 아프간, 무장괴한 공격으로 스페인 관광객 3명 사망

- 5.18 언론은 아프간 관광지인 바미안 석불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스페인 관광객 3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, 당국은 既 체포한 4명을 비롯해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

※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가 5.19 텔레그램을 통해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

○ 태국, 이슬람 무장단체 추정 폭탄테러로 10명 사상

- 5.21 언론은 태국 남부 나라티왓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폭탄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으며, 괴한들은 경비대와 총격전을 벌인 뒤 도주했고 현장에서 사제 폭탄 2개가 더 발견됐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보코하람,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* 위성 인터넷 사용

- 5.14 언론은 나이지리아 軍이 북동부 보르노주 삼비사 숲에서 「일론 머스크」가 운영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보코하람 조직원을 검거했으며 관련 장비를 회수했다고 보도

* 기존 통신망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된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으로 '30년 전후로 쏘세게 최대 1G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목표

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대형 폭탄테러

- '17.5.22 영국 북부 맨체스터의 '아레나' 콘서트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22명 사망 1,017명이 부상
* 약 14,200명이 美 팝가수 '아리아나 그란데' 공연 관람



-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범 「살만 아베디」(22세)는 리비아 난민 2세로 맨체스터에서 출생한 독실한 이슬람교도 학생으로 확인
 - 테러범은 폭발물의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량의 못·볼트 같은 쇠붙이를 넣은 '네일 폭탄(Nail bomb)'을 사용
- 同 테러는 '05.7월 발생한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(56명 사망, 700여명 부상) 이후 영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사건으로 기록
- 사건 다음날, ISIS는 “우리 전사 한 명이 맨체스터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폭발 장치를 설치했다”며 테러 배후를 자처
- ⇒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IS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우리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 동향 주시 필요

< 네일 폭탄(Nail bomb) >

- (정의) 사제폭탄의 한 종류로 화약 등 폭발성 물질에 못·나사·볼트·숫조각 등을 더한 폭발물
- (목적) 폭발력과 더불어 파편을 주변에 고속으로 날려 보냄으로써 살상력 극대화
- (현황) 네일 폭탄은 ISIS 등 자살폭탄 테러범이 인파 속에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
- (해외사례) '13.4.15 '보스턴 마라톤 테러'에 사용된 '압력밥솥 폭탄'도 네일 폭탄의 일종이며, 금속조각의 비산속도를 높여 살상력을 더욱 극대화할 목적으로 압력응축이 가능한 압력밥솥을 용기로 사용
- (국내사례) '17.6.13 연세대 '텀블러 폭탄사건' 범인이 제작한 사제폭발물도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텀블러에 볼트를 채워 만든 네일 폭탄의 일종

